

제418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8 호

국회사무처

2024년12월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8)
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5)
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7)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6)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2)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5)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4)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0)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9)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7)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9)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0)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8)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6)
2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1)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1)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3)
30.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31.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269)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3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3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4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4)
4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4)
4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4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091)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5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1)
5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2)
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6)
54.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5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56.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57.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상정된 안건

1. 각급 법원 관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 5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8) … 5
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5) … 5
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 6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 6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 6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 6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 6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 6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7) … 6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6) … 7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7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2) … 10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5) … 10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4) … 10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 10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0) … 10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9) … 10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7) … 10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9) … 10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0) … 13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 13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8) … 13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6) … 13
2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 13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1) … 13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1) … 13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 13
29.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3) … 13

30.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16
31.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269)	17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20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20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0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20
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0
3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0
3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0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20
4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0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0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0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4)	20
4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4)	35
4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35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36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37
4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091)	37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37
5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1)	38
5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2)	38
54.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39
5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9
56.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39
57.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51

(14시25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이 12월 10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8)
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5)

(14시2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서영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판사 정원의 여유분이 현재 8명밖에 없습니다. 판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 정원 증원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던 내용으로 회생법원, 가정법원 등에 판사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판사 증원이 불가피해 이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규택·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또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끝으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장식·엄태영·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서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으로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7)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6)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4시3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선원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박선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부평을 출신 박선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에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간부 신분 전환 시의 보수보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2조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에 관한 특례는 실익이 없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공제회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 연계 제도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자와 순직자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지급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려는 것으로 기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부칙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국 의원,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전공사상심사의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 및 유가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칭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국방 관련자들과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국가 내란행위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며 우리 국군은 영원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제안설명하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습니다만 법안 내용에 한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9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5인, 기권 7인으로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3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2인, 반대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0인, 기권 5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9인, 기권 4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2)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5)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4)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0)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9)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7)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9)

(14시4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동법은 신고기간과 조사·분석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하는 법안이 고요.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이 또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 법도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고의 부실채권 전담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건 여야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토론이었고요 이 또한 여야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있었던 법은 없고 헌법불합치 결정 난 부분들을 바로잡는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윤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58인 중 찬성 253인, 기권 5인으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6인 중 찬성 271인, 기권 5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8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3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0)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8)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6)

2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1)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1)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29.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3)

(14시5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상식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이상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 사전투표소 참관인의 수를 본투표와 동일하게 최대 8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통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검·석궁과 같은 흉기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6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9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2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86인 중 찬성 283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83인 중 찬성 279인, 기권 4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87인 중 찬성 283인, 기권 4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85인 중 찬성 282인, 기권 3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85인 중 찬성 285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87인 중 찬성 286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15시0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0항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승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위원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주요 수정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험성과 이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먼저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

호의 ‘의혹사건’이라는 용어를 모두 ‘범죄혐의사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범죄혐의사건, 둘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혐의사건, 셋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혐의사건, 넷째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및 유형력 행사, 상해, 국회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혐의사건입니다.

위 수사요구안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명심하라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아무쪼록 내란의 수괴 윤석열과 그에 가담한 자를 모두 밝혀내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정신차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너희들 대통령은 아직도 윤석열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1항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7명의 주요 내란범죄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속 체포를 촉구하는 7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헌이자 위법인 비상계엄의 선포를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상 비상계엄 건의권이 있는 1명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핵심적인 직위에 있으면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계엄이 위헌이자 위법임을 알고도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진두지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회·정당의 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악을 시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든 반헌법주의자들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가슴 졸이셨습니까? 저희 국회도 지난 일주일 동안 꼬박 뜬눈으로 지새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이 왜 이런 참담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었고 저 반헌법적 헌정질서의 유린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와 눈물로 일궈 주신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굴곡진 현대사를 깨끗하게 이겨 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치광이 집단에게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헌법 파괴 비상계엄의 전모를 낱알이 밝히고 내란음모범죄혐의자 그리고 그 수괴를 반드시 탄핵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자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0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해 체포 대상을 7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내란범죄 가담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3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3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4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4)

(15시1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2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3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소 제조용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세법 개정안은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량에 따라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해외직구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세 신고 시 월별로 관세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한 납세 신고 관행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위원식 최상목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현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 표결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이고 관세를 높이겠다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제대로 된 대응조차 어렵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자유민주주의, 즉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 내란범 윤석열 일당 일망타진에 일치단결해야 하는 상황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향후 우리 경제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올해 1월 전격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직전에 발표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겨져 있지 않았 습니다. 마치 계엄을 선포하듯이 갑자기 국민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기재부는 그 후 4월이 되어서야 금투세의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폐지는 기정사실로 하고 사후에 합리화 명분을 만드는 말 그대로 답정너 발주였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던진 정책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동조자들이 거 들고 나섰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무적인 고려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더는 끌려다니지 맙시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듯 내던진 금투세 폐지, 이제 당당히 거부합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 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주식 양도 차익 세율이 2배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니케이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 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손익통산과 이월공 제는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위험성 있는 투자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2019년 토론회에 참가한 자본시장 측 토론자가 이제 안 전벨트를 매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크게 환영한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3년 전 기재부장관은 자신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자신 없 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부의 직무유기를 핑계로 과세를 유예해 줘야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청년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찌다가 우리 청년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코인 투자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를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과세를 미루면서까지 청년들에게 위험이 큰 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회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산·고령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기후위기 등에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고 통과시킨 세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폐지하는 전례를 만들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세금은 곧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리 정치가 일시적인 풍랑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후진적인 과세체계를 방치하는 과거로 회귀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셔서 우리 정치가 더는 후퇴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차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 총액의

53.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총 401조 2000만 원, 일인당 평균 29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전체 투자자의 1%도 안 되는 이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민생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영업자는 불황 속에서 높은 임대료, 고금리로 폐업과 유지를 줄타기 하며 투잡·쓰리잡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비정규직은 33만 7000명이 늘어났고 노동자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민생이 이러한데 유리지갑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 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조세정의의를 무너뜨리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불평등연구소는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조세정의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생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당리당락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 보고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킵시다. 윤석열 탄핵만이 민생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경제 대전환을 이루고 불평등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 정부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장관이 나오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국무위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관여되거나 연루됐으면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여된 사람, 자격 없습니다.

다음, 상증세법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국세 수입을 보면 2022년 395.9조, 그런데 1년 만에 작년에 344.1조, 52조 감소했습니다. 올해 337.7조 예상하고 있는데, 9월 기준입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약 5조가 더 감소될 것 같습니다. 332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공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56.4조, 올해 29.6조 이야기하지만 저는 35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 예상액이 382조면 그 차액이 50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50조를 더 걷을 수 있습니까? 걷을 수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조를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정부, 반성해야 된다, 계속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왜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2022년도 감세정책 60.3조, 23년도 정부가 제시한 것 3.1조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18.4조의 감세정책, 다 합치면 81.8조 정도 누적법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활성화돼야지요.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23년 1년 내내 상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경제 저성장 1.4%였습니다, 일본보다 떨어지는. 올해는 그러면 경제성장이 잘됐습니까? 2.6%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2.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2.0,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재성장률 그 이하로.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납니까? 왜 또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속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약 1조 7000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공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공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상속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마저 단절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기업이 춤을 추고 가정이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며, 앞서 현 시국과 관련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군대가 출동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그 주범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지 않는 한 내란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쥐고 행사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현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윤종오 의원님, 본안건으로 들어가시지요.

○윤종오 의원 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도 못 들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도 못 들어요? 반성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정한 사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은 세법이며 공정과 양립할 수 없는 불로소득 그 자체입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길목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정성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소득보다 아무 노력 없이 물려받는 재산을 더 우대해 주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기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중에 과표구간 500억원을 초과한 상속자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원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국회가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들 나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더해 조금 전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했습니다. 무슨 수로 자본이득에 과세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과 일반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너 등 최대주주는 회사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고 다른 주주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공정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당연히 달리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공제 때문에 상속·증여세에 허점이 많은데 가업상속 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도 늘리고 업종변경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상속·증여세의 감세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이익은 일정 정도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무력화되면 우리 사회는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 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축소하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 원안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를 축소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정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185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7인, 기권 19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69인, 기권 6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이번에 잘 설명 좀 들어 주시고요 꼭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부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원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지요. ISA 가입 허용 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 사항은 모두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의 수직적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원안의 일부 개정 사항을 삭제해서 국가재정이 더 어려운 국민을 돕는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정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민 자산 증대와 기업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상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특법 개정안 수정안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백지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수정안이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열망을 꺾어 버리는 행위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한 결과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환원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선진 증시 평균 배당성향인 49.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울 분리과세하여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과 함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밸류업을 위한 적기입니다.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동에 나설 때 우리도 세제 지원을 통해 밸류업을 더욱 가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의 핵심은 정규직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유지를 전제로 고용과 임금상승분을 함께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에 지급한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안은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더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낮은 단시간 일자리 등의 임금상승도 함께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안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쉽고 간결하게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변화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일일이 수치화해서 전년과 비교해야 하고 고용을 줄인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액을 다시 추정하기 위해 고용 증가 이후 3년 동안 고용 변동을 사후관리해야 하므로 제도 운영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6년간 고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이후 수정 요청 건수도 약 90배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어려워하고 과세관청의 집행도 어렵다면 개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배·동료 여러분!

1400만 투자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여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확대하겠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을 백지화하면 밸류업을 향한 시장의 의지만 차갑게 식어 버릴 것입니다.

부디 1400만 투자자의 열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청년 취업의 위기를 헤아려 더불어 민주당의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입니다.

조세지출은 왜 늘 약자에게 서늘하고 엄격하게 시행되는가? 왜 대기업과 부자들만의 전유물이고 이들에게 따듯한가? 이번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왜 유독 더 심한 것인가?

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대부분의 일몰제도를 연장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라는 일부 조문은 수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밸류업은 효과는 없고 기업 밸류업이 아닌 대주주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현재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49.5%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안은 이것을 27.5%로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의 배당소득 세금을 지금 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깎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하고 급진적입니다.

또 기업 오너가 배당을 많이 해서 지갑을 채우면 자기 소유 기업의 법인세도 5% 더 깎아 주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압도적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부자 상속세 감세 법안과 결합하면 회사의 지배권이나 이익을 오너 2세에게 세 부담 없이 승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을 짜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대주주 일가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결과를 기억해 보십시오. 배당 증대에 따른 혜택이 대주주와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입증됨으로써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애먼 서민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와 함께 이번 정부 세법의 유일한 증세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 394만 명이 일인당 평균 2만 원씩 공제받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입니다.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전자신고세액공제마저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합니다.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셋째, 정부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의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장려 세제가 될 우려가 큼니다. 청년 고용과 경력단절여성 고용까지 포괄하여 상시근로, 계속고용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를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역으로 비정규직을 장려하는 세제로 변질시키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잘살든 못살든 세금은 모든 국민의 피땀, 눈물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세력 있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고 대신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꼭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공정·합리·미래가 결여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임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85인, 기권 3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2인 중 찬성 262인으로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8인 중 찬성 267인, 기권 1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1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4)

(16시1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5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기권 4인으로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16시13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6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욱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 진해구 출신 이종욱 의원입니다.

세입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01인, 반대 33인, 기권 25인으로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16시1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욱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 진해 이종욱 의원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3인 중 찬성 217인, 반대 33인, 기권 13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4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091)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16시1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8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진출 대상인 소·부·장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저와 이재관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소·부·장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서·대안 및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2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2인 중 찬성 260인, 기권 2인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1인 중 찬성 256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1)

5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2)

(16시2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51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 진해 출신 이종욱 의원입니다.

세입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하수법상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함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등 유사·중복 부담금을 통합 정비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3인 중 찬성 257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3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님 나와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책위의장님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정책위의장과 협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54.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5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56.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6시3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정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래 예결위에서 단 한 차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등 예결위의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정부에 증액동의권이 부여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번에도 증액심사가 기한 내에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예산안이 또다시 자동부의되어 예결위의 심사를 우회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8조 원 중 0.3조 원을 감액하고 총지출은 정부안 677.4조 원 중 4.1조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 감액으로 인하여 재난 상황에 적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에 근거하여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1.5조 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검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BTL 한도액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액 감액으로 인하여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 규모 4.1조 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4조 원과 국고채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율 조정 0.5조 원이므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추계부터 문제가 많은 예산안이었습니다. 내년 세입예산이 올해 대비 13.2%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도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건전재정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과학적 예산이 추경을 통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안을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바입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습니다. 몇몇 길은 거쳐 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밭 디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

습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키려는 감액안만으로 된 이 예산안도 아쉬움과 미련은 남지만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 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 심사 경과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박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이 감액한 의결안을 반영한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감액안 4.1조 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677.4조 원의 0.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비비를 감액해 재난과 재해 대응 능력이 악화하고 산업과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비비 집행이 1조 3000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예비비 집행률이 14.3%에 불과합니다. 이를 고려해 감액한 것이고 감액한 예비비를 감안해도 내년도 예비비는 2.4조 원이나 됩니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는 협상 과정을 중단하였습니다.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곧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안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급하게 예산안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우원식 의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의장님이 예산안 처리를 10일에 하겠다고 못 박은 게 12월 2일입니다. 위헌이자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고려해도 7일간 아무 말 없다가 부랴부랴 예산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증빙을 못 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일부 감액된 정책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됐는데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히 권력기관 수사 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 활동의 핵심 가치로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법이 정한 기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구태와 이별하고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을 본회의에 올려 법정기한에 처리한 원칙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가 처음 기재부에 의존하지 않고 예산 세법 부수법안을 다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안 651.8조 원 중 0.3조 원을 감액하고 총지출은 정부안 677.4조 원 중 4.1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추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기재위 동료이시고 예결위 동료이신 오기형 의원님, 재정의 경기 대응을 내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깎으시는지요?

제가 처음 언급드리는 분인데요. 존경하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님, 어렵게 복구한 R&D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일방 통과시키시는지요?

(「본인 이야기나 하세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또 처음 언급드려 봅니다.

존경하는 복지위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님, 기초연금·아이돌봄 지원 삭감된 예산안을 왜 통과시키시는지요? 지금 국회 밖에는 오체투지하시고 삭발하신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요구안이 있습니다.

(「탄핵이나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잠깐만요.

반대토론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본회의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토론을 들읍시다.

○박수민 의원 차분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선이지만 여당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내년도 경기를 걱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셔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인지요.

(「탄핵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의원 있음)

(「빨리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겠습니다.

자, 장석주 시인님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저 안에 태풍 몇 개 / 천둥 몇 개 / 벼락 몇 개’. 장석주 시인이 남기신 아름다운 사유입니다.

매년도 예산안은 봄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전국의 공직자들이 만들어서 다시 토론하고 편성합니다.

여름이 끝날 즈음에 그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예산정책처 분석을 거치고 기재위, 과방위, 복지위, 산자위, 농해수위, 국토위, 국방위 등등 전체 상임위의 분석을 거칩니다. 그렇게 검토된 예산이 늦가을에 예결위로 다시 옵니다. 다시 한 달간의 토론과 분석을 거쳐서 오늘처럼 바로 이 본회의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예산편성의 작업을 교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공동 작업을 국회와 전 공직자, 대한민국은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누군가가 이 거대한 공동의 작업을 하이재킹하였습니다. 예결소위와 간사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논의되던 예산안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 삭감한, 아니, 민주당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호한 일방 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예결위원이었던 저는 그 충격과 좌절 아직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일방 통과시키신 예산, 예결위 마지막 날 제가 한 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화를 다룬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노무현 대통령을 왜 여기서 말해 이 비겁한 놈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자자, 토론을 들읍시다.

○박수민 의원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

이럴 거면, 이렇게 하이재킹하실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십니까? 국회를 왜 운영하십니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겁니다, 예결위에서」 하는 의원 있음)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국회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자자, 조용히 하시고 마지막 토론을 들읍시다.

○박수민 의원 ‘더 벡 스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 이게 어느 책상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책상의 주인은 그 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거기서 멈춰야 할 그 책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여의도 국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혼란을 증가시킬 것이냐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를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며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가 뭔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결위를, 이번에 예결위 예산 수정 의결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폭거라고 대통령께서 주장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길을 이번에 쌓은 겁니다.

이번 국회 예산심사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며 지극히 모범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예결소위에서 정부안에 대한 삭감 논의가 일체의 파행 없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고 쟁점도 여야 간사 간에 대부분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예결위에서 시도를 했지요. 증액에 대한 논의가 3일 동안 충실히 진행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실질적인 진전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예산안 통과 헌법 시한이 도래한 거지요. 그래서 국회 예결위는 11월 30일 날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감액만을 담아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결위의 의결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결위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여야 지도부와 정부 간에 협상을 통해 삭감과 증액에 대한 조정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2월 3일 날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와중에 12월 8일 날 느닷없이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통과 촉구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지연을 국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가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정말 가당치 않은 억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명백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예산 수정안이 민생과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먼저 삭감 규모 봅시다. 4조 1000억입니다. 지난 5년간 국회에서 이루어진 평균 삭감액이 5조 8000억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것입니다. 정부의 충격을 최소화한 거지요.

(「전부 삭감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무리한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 자세히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예비비 보면 예비비를 정부 예산안 대비 절반 2조 4000억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작년도 정부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000억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6000억, 10월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이 지금 남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 2조 4000억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별도의 재원들이 또 있습니다. 유사한 목적의 예비 재원이지요.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재원이 1조 5000억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부처는 별도로 재난대책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1조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결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억 감액했습니다. 평균 조달금리를 최근 실적치에 맞추어서 현실화한 거지요. 그 과정에서 5000억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내년 에 기준금리가 적어도 두세 차례 아마 더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지원, 의료개혁 등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삭감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용이 예산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수요를 과다 추계했어요. 어차피 못 쓸 돈이 생기는 겁니다. 또 행정절차가 미비된 겁니다. 이런 돈들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에서 서로 삭감하기로 합의된 사업들을 그대로 예결위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R&D 사업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전 준비와 사업 성과 담보가 부족한 사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두룩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 디폴트 위험국에 대한 유상 ODA 사업도 삭감했습니다. 민생예산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도 턱없이 부족한 외화 낭비, 역대급 우려되는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증액 예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활비, 예비비를 살리기 위한 구색용 증액이었습니다.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헌정질서를 붕괴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 함께 이 증액을 논의하겠습니까? 증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정국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여야정 간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신속한 예산 통과가 절실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고 믿었던 수출 회복마저 현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술패권, 관세 통상전쟁의 파고가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 우원식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안도걸 의원 이번 계엄과 내란 상태 지속이라는 핵폭탄이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경제를 살릴 예산을 통과시켜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데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안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운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부결로 우리 경제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몇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내란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한 것입니다. 헌정 사상 가장 사악하고 음험한 예산을 내놓은 윤석열 내란 집단의 흥계를 국회가 막은 것입니다.

내란 이전 대통령실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재해·재난 대응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내란 집단의 선동과 일부의 부화뇌동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일반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쓴 용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열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의 사실상의 공범입니다. 검찰은 수사 관할도 아닌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지금 모종의 흥계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이 광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검찰이 윤석열은 부차적이고 김용현 중심의 범행인 것처럼 신문했나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내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검찰 쿠데타 발상입니다. 윤석열 구속은 국수분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리에 있는 한 추경안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권자가 위임하지도 않았고 헌법적 권한도 없는 내란의 동조자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국민의 적이 되지 마십시오.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위해 내란 동조자가 아닌 권한대행이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황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부대의견 3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세출사업의 감액 취지를 명시하는 부대의견 2건과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전용 또는 예비비 배정 등으로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으로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2인 중 찬성 26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와!」 하는 의원 있음)

(「내란수괴! 내란공범!」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사과하고 오세요, 윤석열 정부가 사과 먼저하고」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란수괴 들어가! 어디를 올라와?」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고 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가! 나가! 나가라고! 한덕수 나가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좀 들읍시다.

○국무총리 한덕수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내란수괴!」 하는 의원 있음)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연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좀 조용히 하고 들읍시다.

(「한덕수 나가! 한덕수 나가라고!」 하는 의원 있음)

(「내란수괴! 내란공범! 내란모의! 한덕수 나가!」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한덕수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운 분들이 당면한 민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사받을 준비나 해!」 하는 의원 있음)

(「당장 내려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또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도 착실히 진행해 가겠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란공범 나와!」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이나, 침체냐의 기로에서 숨 고를 시간조차 아쉬운 때입니다.

(「사과는 안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계엄 때문에 경제가 박살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우리 경제가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조용히 하시고 좀 들으시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만 관련해서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시작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자체 삭감 내역에는 임대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 예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집중적인 예산 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 놓고 오히려 예산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고 민생 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의장이 나서서 정부와 테이블을 만들고 예산 증액과 합의 처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장내 소란)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 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을 기대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민생 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

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17시18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원이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원이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원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7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8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액된 255조 원, 예비한도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액된 25조 원으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세계적 경제 회복 지연,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경제 여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구나 윤석열 군사반란·내란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이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원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으로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1인)

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옥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신동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7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	-----	-----	-----	-----	-----	-----	-----	-----	-----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북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4인)

찬성 의원(27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서일준 주호영

(민병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83인)

찬성 의원(28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기권 의원(3인)

곽상언 김동아 이연희

(한기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투표 의원(284인)****찬성 의원(27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기권 의원(6인)

강유정 곽상언 민형배 이연희 전종덕 정점식

(서영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이언주·한기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7인)****찬성 의원(28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김동아 용혜인

(김은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관에서 찬성으로 정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7인)****찬성 의원(28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3인)

김동아 김은혜 이연희

(민병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88인)

찬성 의원(28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운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김동아

기권 의원(3인)

강유정 염태영 이연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6인)****찬성 의원(28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택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정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83인)****찬성 의원(28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김동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85인)

찬성 의원(28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5인)

강유정 김동아 박지혜 송재봉 이연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3인)****찬성 의원(27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희	

기권 의원(4인)

김민전 박찬대 용혜인 윤종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58인)****찬성 의원(25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북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5인)

김민전 박정훈 유영하 이상휘 주호영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65인)****찬성 의원(26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곽상언 김미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72인)****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박선원 이철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70인)****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정동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7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박수영

(권향엽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6인)

찬성 의원(271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5인)

김민전 박수영 임종득 전진숙 한창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82인)

찬성 의원(27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김기표 이용우 정준호 한지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8인)

찬성 의원(27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5인)

김기표 김태선 이용우 전진숙 정준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7인)

찬성 의원(27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강유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81인)

찬성 의원(28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정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80인)

찬성 의원(249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정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6인)

강대식	강승규	구자근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형동	박성민
박수영	박준태	배현진	서천호	엄태영	유영하	윤한홍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현승	임이자	정점식	조지연	한기호				

기권 의원(5인)

김은혜 나경원 박대출 서일준 한지아

(김승수·박준태·이현승·조지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86인)****찬성 의원(28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3인)

강민국 서명옥 신동욱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3인)****찬성 의원(27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4인)

박희승 유영하 최보윤 한지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87인)****찬성 의원(28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북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3인)

곽상언 송재봉 이수진

(정춘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86인)

찬성 의원(28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곽상언 인요한

(김태년·이정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5인)****찬성 의원(28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진	김병기	김병주	김상옥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북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87인)

찬성 의원(28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이용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투표 의원(287인)

찬성 의원(20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64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백종현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기권 의원(14인)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김종양	박성훈	박정훈	박형수	서일준	신성범
엄태영	이달희	이성권	정성국						

(최수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박성준 의원 외 30인 발의)**투표 의원(288인)****찬성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95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기권 의원(3인)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박덕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73인)****찬성 의원(27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위성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74인)****찬성 의원(204인)**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염태영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한홍	윤희중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33인)

강경숙	김남근	김동아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원이	김재원	김종민	박은정
서왕진	소병훈	신장식	어기구	용혜인	위성곤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광희
이수진	이인영	이해민	임미애	전종덕	정동영	정춘생	정혜경	조국	진성준
차규근	한창민	황운하							

기권 의원(37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남희	김영배	김영진	김윤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박주민	박홍배	복기왕	서삼석	서영석	신정훈	안호영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이강일	이용선	이용우	이재정	임오경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진숙	조인철	조정훈	차지호	허성무	홍기원			

(다른 의원이 착오로 부승찬 의원석에서 표결기 조작, 부승찬 의원 기권에서 불참으로 정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2인)****찬성 의원(278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운	이소영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1인)

한창민

기권 의원(3인)

민형배 이수진 정춘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81인)****찬성 의원(97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천하람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반대 의원(18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기권 의원(3인)

김소희 서지영 황 희

(이학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박찬대 의원 외 169인 발의)**투표 의원(280인)****찬성 의원(18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춘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94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1인)

윤종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75인)****찬성 의원(23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호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 희		

반대 의원(18인)

김성환	김용만	김원이	김한규	문대림	민형배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위성곤	윤준병	이소영	이연희	전진숙	차지호	허 영	황정아		

기권 의원(19인)

고동진 권향엽 김선민 김 윤 김태선 남인순 문금주 박상혁 박수현 안태준
 위성락 윤건영 이수진 이용우 임미애 장철민 최형두 한창민 홍기원
 (위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정혜경

기권 의원(4인)

김선민 위성곤 윤종오 전종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26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6인)

김민전 김선민 김 윤 임미애 임호선 한창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박찬대 의원 외 169인 발의)

투표 의원(266인)**찬성 의원(178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85인)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천하람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3인)

서왕진 용혜인 이소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3인)****찬성 의원(26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주철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북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기권 의원(2인)

박선원 한창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6인)****찬성 의원(26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원택 한창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4인)****찬성 의원(26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하람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민형배 안호영 이기현 최기상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01인)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정하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반대 의원(33인)

강경숙	강훈식	권칠승	김남희	김영배	김윤	김재원	모경중	민형배	박수현
박은정	박홍배	박희승	서왕진	신장식	안철수	용혜인	유동수	윤후덕	이수진
이재강	이재정	이해민	임호선	정춘생	조국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황운하							

기권 의원(25인)

곽규택	김기웅	김동아	김선민	김승원	김원이	남인순	문금주	문대림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백승아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위성락	이광희	이기현	이상식
이소영	전용기	전종덕	진선미	최수진					

(다른 의원이 착오로 박정훈 의원석에서 표결기 조작, 박정훈 의원 찬성에서 불참으로 정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3인)****찬성 의원(217인)**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항엽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성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33인)

강경숙	강유정	김선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민형배	박수현	박홍배	서왕진
신장식	양문석	용혜인	윤종오	윤후덕	이기현	이수진	이재정	이해민	임오경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국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한정애	한창민	황운하							

기권 의원(13인)

김남희	김동아	김승수	김윤	김재원	남인순	박은정	박정	박해철	안철수
안태준	유동수	최보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2인)****찬성 의원(25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1인)

문금주

기권 의원(3인)

김영환 김우영 이만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62인)****찬성 의원(26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영환 문금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5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5인)

곽상언 김영환 문금주 문대림 박선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3인)

찬성 의원(25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결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손명수
송기현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락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위성곤 진성준 한창민

기권 의원(3인)

서영석 소병훈 유동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3인)****찬성 의원(25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결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옥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한창민

기권 의원(4인)

강훈식 소병훈 유동수 진성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찬대 의원 외 169인 발의)

투표 의원(278인)

찬성 의원(18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94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1인)

용해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박찬대 의원 외 169인 발의)**투표 의원(271인)****찬성 의원(178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93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용혜인

기권 의원(1인)

이용선

(윤재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6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운	이소영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유동수

○출석 의원(29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회					

○개회 시 재석 의원(27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26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청가 의원(3인)

강명구 김문수 한병도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정명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덕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일부장관 김영호

법무부장관 박성재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행정안전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보고사항】**○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민석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4. 12. 10.

○의안 제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2. 9. 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2. 9. 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이상 2건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10)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2024. 12. 9. 박성준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31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2024. 12. 9. 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2024. 12. 9. 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2024. 12. 9. 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

이상 2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31)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2024. 12. 10. 김용민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348)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2024. 12. 10. 김용민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349)

○의안 심사**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원안대로 의결)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 12. 5. 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26)

(수정하여 의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8.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국방위원장 보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7.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5.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2)

(이상 5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7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33)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1)

(원안대로 의결)

2025년도 예산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0)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0)

12월 9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12. 8. 고동의 외 63,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3)

12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2024. 12. 9. 경덕현 외 114,40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4)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